

# 일자리·자격증... 일상으로 들어온 드론서 길 찾다

은퇴 후 生을 말하다 <11>

<제2부> 인생 2막 여는 사람들

⑧ (사)전남드론교육산업진흥원 이동현·허진숙 씨

전남도 거주 구직자 대상 국가자격증 무료교육  
항공방제·촬영·설계 등 직무역량 강화 실무체험  
22~62세 다양한 연령층 1~3기 교육 22명 수료



(사)전남드론교육산업진흥원이 드론 교육원생을 상대로 취·창업교육의 일환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남드론교육산업진흥원 제공>



영광군 불갑면 (사)전남드론교육산업진흥원 연습장에서 한 교육생이 조종하는 드론이 비행중이다.

“드론 방제작업은 일반적으로 3.3㎡(1평)당 30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드론을 6-7분 날리면 9900㎡(3000평) 9만원을 벌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번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18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과거 공중과 한 예능에서 가수 김건모가 “노후 대책으로 드론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드론이 화제가 됐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서 펼쳐진 ‘드론 요요기 퍼포먼스’는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드론 인기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

한동안 매니아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드론이 일상으로 내려와 인생 2막을 설계

하는 중장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영광군 불갑면 (사)전남드론교육산업진흥원에 들어서자 드론의 유행하는 소리가 방문객을 반겼다. 하늘에서 묘기도 부리고, 전혀 다른 각도의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드론은 촬영은 물론 요즘에는 축구, 레이싱 까지 가능하다.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따려면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면 20시간의 비행 경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20시간을 채워야 한다. 드론과 관련한 국가공인자격증은 교통신공단에서 주관하는 조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증이 유일하다. (사)전남드론교육산업진흥원은 전남도

3대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 성장 4차산업 드론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부터 정부-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전남드론교육산업진흥원은 800만 원 상당의 드론(12kg)을 임차해 전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구직자를 상대로 드론 국가자격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부터, 항공촬영, 드론설계 및 코딩, 드론제작 및 정비, 항공행정 등이 있으며, 자체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실무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적성에 맞는 업종 선택이 가능하다.

전체 지원자 140명 중 최종 60명을 선정해 지난달까지 1-3기까지 교육을 완료했다. 연령은 22세부터 62세까지 다양했다. 1기 10명, 2기 9명, 3기 3명이 정규 드론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이들은 한달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20시간 총 160시간의 교육을 수료했다.

특히 정규 드론교육을 처음 시작 1기의 경우 실기시험을 100% 통과했다.

(사)전남드론교육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단순 반복 학습으로 합격이 보장되진 않는다”면서 “1기 수강생들의 경우 보기 드물게 전원 실기를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끝>  
/영광·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노인들도 쉽게 농약 방제 작업 할수 있도록 교육할 것”



드론 선구자 이동현 씨

“농지가 많은 전남은 집집마다 드론이 있는 시대가 금방 올것 같습니다. 노인들도 쉽게 농약 방제 작업을 펼치수 있도록 교육하고 싶습니다.”

이동현(65)씨 주변에서는 드론을 배워 남들보다 한 발 더 빠른 ‘선구자’로 불린다.

서울에서 세무사를 하던 이씨는 지난 2017년 고향인 영광군 군남면으로 귀향했다. 몇해전 글로벌 IT기업인 아마존이 드론을 통해 무인택배를 통해 배송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전까진 드론에 대해선 서울 잠실에서 날리는 것을 본 것이 전부였다. 드론에 대한 특별한 배경과 기술력이 전무했던 이씨가 드론 교육에 뛰어든 것은 자신만의 상상력

과 추진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드론의 매력은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항공사진은 물론 농업방제에서도 드론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이씨는 (사)전남드론교육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기 드론정규교육(1개월)과 교과과정을 수료했다.

이씨는 “20-30대에게 익숙한 게임기모양을 한 조정기로 드론을 처음 조정했을때는 상당히 애를 먹었다”면서 “피나는 노력 끝에 우수한 성적으로 드론 국가자격증과 교과자격증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론을 배워보니 농민들도 집에 하나씩 보관하는 시대가 곧 올것 같다”면서 “앞으로 드론인을 양성하며 농약 방제 작업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청소년들에 ‘드론 조종사’ 꿈 이룰수 있도록 도움”



드론 조력자 허진숙 씨

“드론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초·중·고 등 청소년들을 4차 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직종인 ‘드론 조종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전업주부인 허진숙(55)씨는 지난 2015년 인천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남편의 정년퇴직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영광으로 귀촌했다.

귀촌한 남편과 함께 굴비사업을 하고 있던 허씨는 우연히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드론정규과정 교육을 접했다. IT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허씨였지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허씨는 전남드론교육산업진흥원은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정규과정은 물론 교과자격증까지 취득하며 드론의 매력을

느꼈다. 그렇게 드론은 그의 삶속으로 들어왔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기쁨도 컸다

허씨는 “처음 드론을 배운다고 했을때 자녀들이 모두 의아해 했다”면서 “지금 아이들이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드론 교육으로 인생 2막을 열고 싶다”면서 “IT기기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드론과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드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리더로 성장하는 데 조력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드론이 단순 취미생활을 넘어 고정 수입이 있는 직업으로도 서서히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고 덧붙였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신양파크호텔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www.shinyangparkhotel.com